

〈일반논문〉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의 『教科書編輯彙報』 발간과 ‘國史’ 교육 방침

조 건*

〈목차〉

- I. 서론
- II.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 배경
- III.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 경위와 구성
- IV. 『교과서편집휘보』의 ‘국사’ 관련 내용과 특징
- V. 결론

[국문초록]

조선총독부는 1938년부터 『교과서편집휘보』를 발행하여 황국신민화 교육을 위한 지침서 및 도구서로 활용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2회 발행을 계획했으나 1940년 3회, 1941년에는 4회 발행되기도 했다. 발행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시국’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행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교과서편집휘보』는 모두 12권으로, 제1집부터 제11집까지, 그리고 제13집 별편이 남아 있다. 『교과서편집휘보』 제6집은 ‘국사특집’, 제7집은 ‘지리특집’, 그리고 제8집부터 제11집까지는 ‘국민학교특집’ 등의 부제가 붙어 있다. 당시 해당 과목의 교과서 발행과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체제와 내용을 새롭게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구성한 것이었다.

『교과서편집휘보』 중 ‘국사’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편은 제3집과 제6집이다. 1939년 4월 발간된 제3집에는 1년 전 발표되었던 개정 조선교육령의 취지에 따라 당시 『국사지리』와 『국사』 교과서의 특징, 그리고 시간 및 교재 배당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6집은 『초등국사』 5학년용의 개정 발간을 맞아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특별히 구성한 것이었다.

1930년대 말 개정 조선교육령의 발표와 그에 맞춘 교과서 발행, 그리고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황민화교육 시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주제어

『교과서편집휘보』, 조선교육령, 황민화교육, 교육정책, 학무국, 『초등국사』

I. 서론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이후 『교과서편집휘보』를 발간하였다.¹⁾ 『교과서편집휘보』는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서 사용될 교과서의 편집 방침을 규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발행과 식민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서편집휘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이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1940년 7월에는 ‘국사특집’호가 발행되

1) 『교과서편집휘보』의 발행자는 조선총독부였고, 인쇄소는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京城府 大島町 38번지)였다.

기도 했던 만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역사교육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

『교과서편집휘보』는 지금까지 모두 13집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²⁾ 1938년 6월에 제1집이 발간되었고 제13집 별편이 1942년 7월에 간행되었다. 이 시기는 일제가 중국과의 전면전을 도발하고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하는 일로에 있었던 때이다. 이에 따라 제국 본토는 물론 식민지 조선의 교육도 전시체제에 맞게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인에게는 황민화정책에 따른 황민화교육이 강제된 시기였다. 따라서 『교과서편집휘보』에는 식민지 조선인을 교육을 통해 황민화하려는 구체적인 의도와 방편이 드러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과서편집휘보』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 일본학계에서 1938년 조선교육령 발표와 일본어 교육의 강화 등 황민화 정책의 추진 상황을 『교과서편집휘보』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있었지만 관심 자체가 일본어 교육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전체상과 시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³⁾ 특히 역사교육의 관점은 전혀 고려에 없었다.

역사교육학계에서도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과 그 의미에 대해 소략하나마 언급한 연구는 있었다.⁴⁾ 특히 김한중은 『교과서편집휘보』 발간 취

2) 지금까지 『교과서편집휘보』는 총 11집까지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국회도서관에 제13집 별편이 소장되어 있었다. 12집과 13집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제13집 별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과서편집휘보』는 정식 발행만 13집, 그리고 추가로 별편들이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민병찬·박화리, 「일제강점기 교과서 개정에 대한 일고찰 - 『교과서편집휘보』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보』 30, 2006.

4) 김한중,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발행」, 『역사교육연구』 9, 2009. 김한중은 『교과서편집휘보』가 교과서 발행과 활용의 기본적 지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교과서 역할을 대신하는 하나의 교재였다고 기술하였다.

지를 밝히고, 이 자료가 갖는 성격의 일단을 규명한 바 있다. 다만 『교과서 편집휘보』의 일부 내용만을 언급했을 뿐 자료의 전체 구성이나 주요한 내용, 특히 역사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분석하지 않았다.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와 황민화정책 시행에 따른 역사교육 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제법 있었지만, 여기서도 『교과서편집휘보』가 중심이 된 적은 없었다.⁵⁾

그러나 『교과서편집휘보』는 조선총독부가 그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듯 1938년 조선교육령 발표 이래 황국신민화 교육에 맞는 '우량 교과서' 발간을 위해 수시로 발행한 안내서 겸 지침서였다. 즉 조선총독부가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 내 교과서 발행과 황민화 교육을 직접 지속적으로 재단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도구서가 바로 『교과서편집휘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편집휘보』의 내용을 잘 분석하면 당시 일제의 황민화교육, 특히 역사교육의 기초와 방침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제가 식민지 조선, 특히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시행했던 황민화정책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 배경과 체제 및 구성, 그리고 그 내용적 특징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 식민지 '국사' 교육의 구조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5) 權五鉉, 「朝鮮總督府下における歴史教育内容史研究-國民意識形成の論理を中心に-」, 廣島大學教 博士學位論文, 1999; 장신,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 2004; 권오현,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역사교육논집』 30, 2003; 손석영, 「일제의 대동아사 구상과 역사교육 - <동아 및 세계> 과목과 교과서 『중등역사1』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연구』 29, 2017; 허미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고등보통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와 조선사 교육의 특성」, 『한국사연구』 186, 2019.

II.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 배경

『교과서편집휘보』가 처음 발간된 것은 중일전쟁 개전 다음 해인 1938년 6월이었다. 1938년 2월 개정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직후였고,⁶⁾ 이에 따라 황민화교육이 노골적인 본성을 강화하기 시작한 때였다.

1938년은 여러모로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에서 이정표가 되는 때였다. 앞서 언급했듯 1938년 2월에 조선교육령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같은 달 「육군특별지원병령」이 칙령으로 공포되어 조선인 청년들을 지원의 형식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4월에는 제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전시 통제와 동원을 목적으로 한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었고, 6월에는 조선총독부 어용단체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설립되어 이른바 銃後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바야흐로 '戰時'가 도래한 것이었다.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은 이렇듯 전시체제와 황민화정책이 함께 결부된 시기에 이루어졌다. 요컨대 식민지 조선인을 황민화하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조선의 교육,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편집휘보』는 교과서가 아니었

6) 이때의 개정 조선교육령을 학계에서는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명명한다. 조선교육령은 일반적으로 총 4차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1911년의 구교육령, 1922년의 신교육령, 그리고 1938년의 개정교육령에 이어 1943년 통합교육령이 그것이다. 1945년 7월 전시교육령이 공포되었다고 하나 실효적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선교육령은 10차에 걸쳐 공포되었다. 학계에서는 이 중 주요한 것만을 추려 네 차례, 또는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재영은 조선교육령은 엄연히 10차에 걸친 개정 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몇 차례만 임의로 추려서 별도로 차수를 부여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계가 주목하는 네 차례의 개정 외에도 주제와 시각에 따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차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허재영,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2009, 23쪽).

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직접 교육하는 도구로는 부적절 했다. 『교과서편집 휘보』의 제작 시기를 통해 그 발간 의도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책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궁리해야만 한다.

조선총독부는 병탄 직후부터 식민지 조선의 교육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는 식민지 조선 통치의 토대 구축을 위해 당시 아동들에게 사용되던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⁷⁾ ‘불온한 문자’를 사용하거나 ‘부당한 사상’을 ‘감염’시킬 唱歌 등이 수록된 교과서를 색출해 내겠다는 심산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가 황민화교육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강제한 최초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종합판이 1911년에 발표된 제 1차 조선교육령이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 이래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교육의 대원칙은 ‘皇民化’였다. 조선교육령에 따른 식민지 교육정책의 이념적 지향은 教育勸語의 취지를 바탕으로 ‘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었다.⁸⁾ 그러나 1910년대 이래 일제 당국이 조선인에게 강요한 황민화교육은 결코 일본인과 조선인의 완벽한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황에 충성을 다하는 인민이 되도록 하되, 그렇다고 완벽한 일본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통치 그 골자는, 의무는 부여하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조선인에게서 권리를 외면하려면 의무 역시 두루몽술하게라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인에 대한 지원병제도 실시이다. 지원병제도는 본격적인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병역의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입장에서 조선인들

7) 「不良教科書調査」, 《毎日申報》 1910.11.6. 2면.

8) 김한중,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발행」, 308쪽.

이 스스로 지원해 일본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기만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조선인들이 너무나도 원해서 복무하는 것이니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 반대급부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은 일본인과 동질화 되는 '황민화'가 아니라 '식민지형 국민교육'일 뿐이었다는 지적이 있다.⁹⁾ 제국주의 일본이 일본인과 조선인을 '황민'과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로 구분하면서 사실상 차별 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일본 '국민'의 성격은 臣民-公民-皇民의 순으로 변화하는데, 일제는 조선인을 황국신민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식민지적 특수성이 가미된 교육을 받게 하였다. 제국주의 일본에게 조선인은 '신민'의 지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교육 내용 역시 그러한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식민지적 특수성이 가미된 교육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지기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초반부터였다. 특히 1920년대 말부터 '조선특수사정'을 반영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교과서를 개정·편집할 때 조선의 역사를 많이 편입하면서 실제로는 '日鮮併呑'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⁰⁾ 겉으로는 조선 역사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듯하지만 실상은 "조선인 학생들의 민족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조선사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조선역사와 조선문화에 대한 정책전환을 꾀한 것이었다.¹¹⁾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이 제국 내에 차지하는 '특이'한 위상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9) 김정인,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역사교육』 122, 2012, 111쪽.

10) 허미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고등보통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와 조선사 교육의 특성」, 439쪽.

11) 허미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고등보통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와 조선사 교육의 특성」, 440쪽.

이러한 조선의 특수성에 따른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이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이다.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35년 3월이었다.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교과 중 하나인 역사과목을 식민지 현실에 맞게 꾸미기 위한 기구였다. 특히 1923년 처음 발간되었던 『보통학교국사』 내용이 1930년대 이후 “국체사상의 확립을 꾀”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따라 역사교과서 내용을 조사·검토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가 설립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34년 12월 26일 경성제대 총장 야마다 미요시(山田三良)가 당시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역사교과서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의서」에서 비롯된다.¹²⁾

본관이 본 대학에 봉직하기에 이른 이래 조선 여러 학교에서 역사교과서를 언 듯 보니 중등학교용 국사교과서 및 동양사 교과서 중에는 조선의 사실에 관해 심하게 오류를 기재한 것도 적지 않고, 보통학교 국사에는 국사와 상관없는 조선의 옛 전설, 선현의 사적 등을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삽입해 도리어 국사의 체계를 흐리게 하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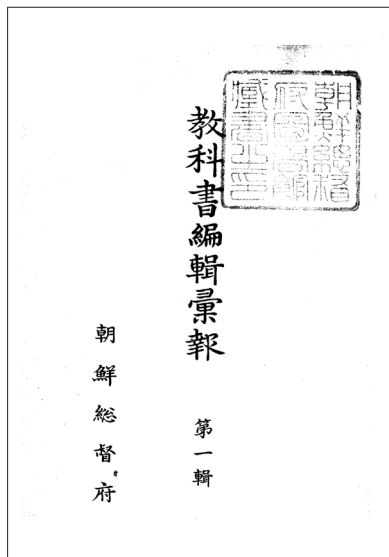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는 192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설치된 바 있었던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앞서 설치되었던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가 모든 교과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했다면, 임시

12) 權五鉉, 「朝鮮總督府下における歴史教育内容史研究 - 國民意識形成の論理を中心に -」, 10~15쪽; 허미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고등보통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와 조선사 교육의 특성」, 443쪽.

13) 권오현,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10쪽 재인용.

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는 역사과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히 황국신민화 교육을 위한 '국체명징'과 '국민통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역사과목을 주목했던 것이다.¹⁴⁾

궁극적으로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는 '국사'의 체제와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발간은 녹록치 않



『교과서편집회보』 제1집 표지

았다. 1937년 초등학교용 『초등국사』는 발간했으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발간은 계속 늦춰져 1942년에 가서야 『중등학교(저학년용)』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부터 이어져 온 황민화정책의 필요성은 1930년대 들어 더욱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할 교과서 발행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교과서편집회보』는 이러한 상황 아래 교과서를 보조하면서 그 발행 의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시국에 따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의도로 발간되었다.

요컨대 『교과서편집회보』는 중일전쟁에 따른 전시체제의 도래와 함께 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발행되었다. 이것은 이미

14) 권오현,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15~16쪽.

15) 장신,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19~20쪽.

1910년대와 20년대부터 이어져 온 조선 민족의 황민화교육 기조에 발맞춰 이를 더욱 보강하고 보충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37년 일본에서 교수요목이 발표되었고, 1938년 3월에는 그 요지를 이어받아 식민지 조선에서 개정 조선교육령¹⁶⁾이 공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사’ 교육 체제 아래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조선사’는 자취를 감추고, 그야말로 ‘국사’, 즉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¹⁷⁾ 그리고 같은 해 6월 조선총독부는 『교과서편집휘보』를 발간한다. 『교과서편집휘보』는 제국 일본 전체의 교육적 의도와 깊은 연관을 맺으며 제작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당시 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교육의 요체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가 국경 발행했던 『초등국사』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III.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 경위와 구성

1. 발간 경위

『교과서편집휘보』는 교과서 발행의 취지와 방침, 교과서의 구조 및 특색 등이 담긴 보조교재의 역할을 띠고 있었다. 특히 그때그때 적합한 교과서 발행이 쉽지 않았던 조선총독부의 사정에 따라 그 제도와 형식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교과서편집휘보』가 처음 제작되던 1938년 5월 『동아일보』에서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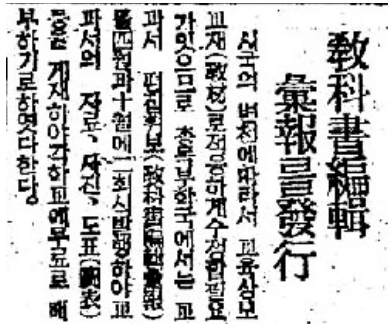
16) 일반적으로 제3차 조선교육령이라고도 한다.

17) 김한중, 「내선일체론의 역사교육 적용」, 『역사교육연구』 20, 2014, 332쪽.

발행 목적과 용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시국의 변천에 따라서 교육상보교재(教材)로 적층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독부 학국(학무국-필자)에서는 『교과서편집취보』(教科書編輯彙報)를 四월과 十月에 二회씩 발행하여 교과서의 자료, 사진, 도표(圖表) 등을 게재하여 각 학교에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였다 한다.¹⁸⁾

동아일보는 『교과서편집취보』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발행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발행 목적은 교과서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시기는 4월과 10월로 연 2회를 계획하였다. 아울러 각 학교에 이를 무료로 배부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행 시기와 회수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교과서편집취보』 발행 기사(『동아일보』, 1938.5.28.)

두 차례 발행한다는 계획은 1939년까지 두 해만 지켜졌다. 1940년부터는 오히려 발행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4월과 10월로 계획했던 발행일 역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38년에는 6월과 9월, 1939년에는 4월과 9월에 각각 발간되었던 것이다.¹⁹⁾

다만 발행 간기와 회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인 조직을 이용하여 교과서를 보조하는, 사실상 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

18) 〈教科書編輯彙報를發行〉, 《동아일보》 1938.5.28. 2면.

19) 『교과서편집취보』의 발행 간기와 회수에 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고자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래 『每日新報』에는 이러한 점이 더욱 분명히 밝혀져 있다.

각 학교 교과서용의 도서(圖書) 중에는 시세의 진전에 따라 수정(修正)을 도하는 것과 또는 교재(教材)에 관하여 편찬자(編纂者)의 방침이라든지 혹은 참신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로서 사진 도표(圖表)들을 수집해서 만든 것을 각 학교에 무료로 배부케 되었다.

이는 교과서와 아울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총독부에서는 『교과서편집휘보』(教科書編輯彙報)라는 명칭을 부쳐 발행하기로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전 조선 각 공사립학교에 유루업시(유례없이-필자) 무료로 배부할 터인데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발행하리라고 한다.²⁰⁾

『每日新報』에는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 사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교과서편집휘보』가 시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아울러 편찬자, 즉 조선총독부의 방침을 전달하는 도구임을 분명히 하였다. 배포는 조선 내 모든 공사립학교에 무료로 할 것이라는 점도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실제 발간된 『교과서편집휘보』에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었을까. 『교과서편집휘보』는 매년 발간할 때마다 발간사를 수록하고 있었다.²¹⁾ 다음은 1938년 6월 창간호의 발간사 중 일부이다.

생각건대 교과서는 아동 교양의 재료에 대한 규범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20) <編輯彙報, 各學校에 配付>, 『每日新報』 1938.5.28. 3면.

21) 제1집에는 ‘發刊の辭’, 제2집에는 범례와 일러두기 정도의 ‘希望’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에는 ‘제3집의 발간에 맞이하여’, ‘제4집 발간에 대하여’ 등의 이름으로 발간사를 수록했다.

연마하는 소재이며 교사의 활동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를 좌우하는 열쇠이다. 따라서 우량 교과서 간행은 교육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긴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간섭을 받아 그 개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문화의 진전에 뒤처지는 경우가 흔하다. 본 부(조선총독부-필자)는 이에 비추어 그 폐해를 고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후 수시로 『교과서편집회보』라는 것을 발행하여

1. 편찬에 관한 근본정신을 서술케 하는 것
 1. 사회 문화의 진전에 따라서 교재의 개정을 요하는 것
 1. 참신한 교수 자료로서 소개할 만한 것
 1. 사진 그림 도표 등의 제시로 학습 지도에 흥미를 줄 수 있는 것
 1. 그밖에 교수에 참고가 될 만한 것
- 등을 輯錄하여 널리 전 조선의 소학교에 반포하려고 하는 것이다.²²⁾

위 발간사를 통해 『교과서편집회보』의 발간 목적과 배경 여럿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교과서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고 그 효과를 좌우하는 열쇠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간섭을 받아 그 개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를 고치기 위해 “수시로 『교과서편집회보』라는 것을 발행”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즉 여러모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 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교과서편집회보』를 수시로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교과서 편찬에 간섭 받는 여러 가지 조건은 무엇이였을까.

조선총독부는 1937년 당시 황민화교육의 기초 아래 『초등국사』 권1을 국정으로 발행하였다. 『초등국사』는 이어서 권2가 1938년에 발행되었고, 이후 개정을 거치다 1940년과 1941년 각각 『초등국사』 저학년용과 고학

22) 「發刊の辭」, 『教科書編輯彙報』 第1輯, 1938. 6월, 1~2쪽.

년용이 발간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42년에는 『중등국사』 저학년용이 제작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1943년 『중등국사』 고학년용의 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²³⁾ 그러나 곧이어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중등국사』 고학년용의 발간은 쉽지 않았다. 『중등국사』 고학년용의 발간이 어려웠던 것은 1943년 통합교육령(제4차 교육령) 발표에 따라 수업연한이 줄었기 때문이었다.²⁴⁾ 아울러 전시체제가 심화되면서 고질적인 물자부족으로 인한 종이 수급의 어려움도 크게 작용했다.

1940년 발간된 『교과서편집휘보』 제6집의 발간사에는 “물자 절약의 요구가 더욱 절박해 지고, 특히 용지 기타 인쇄에 관한 자재의 소비는 극히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⁵⁾ 중일전면전 이후 전시체제의 심화는 종이를 비롯한 물자 긴축을 강요받았고 이것이 시국에 상응한 국정교과서 발행에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교과서편집휘보』는 바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교과서편집휘보』는 조선총독부의 교육 방침이나 자료를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기만 하지는 않았다. 나름의 소통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질의응답’ 코너 이다. 제2집의 발간사 성격인 ‘희망’의 제1장에는 『교과서편집휘보』가 지방교육의 ‘實際家’와 편집 당국을 긴밀히 결합하는 연결고리로 삼는다는 문구와 함께, “편집휘보에 眞面目인 교재연구가의 質疑欄을 특별히 설치하였으니 충분히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²⁶⁾ 각 지역에서 실제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의 질문을 편집 당국이 답변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23) 「『中等國史』低學年の新刊」, 『教科書編輯彙報』第13輯 別篇, 1942. 7월, 5~6쪽.

24) 장신,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20쪽.

25) 「編輯彙報第6輯の刊行にあたりて」, 『教科書編輯彙報-國史特輯-』第6輯, 1940. 7월, 2쪽.

26) 「希望」, 『教科書編輯彙報』第2輯, 1938. 9월, 1~4쪽.

2. 체제와 구성

지금까지 『교과서편집휘보』가 어떠한 배경과 필요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교과서편집휘보』의 발행 현황과 구조,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교과서편집휘보』는 1942년 7월 제13집 별편까지 포함하여 총 12권이 다. 별편이 얼마나 더 발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인된 것만 기준으로 할 때, 제12집과 제13집 본편까지 더하여 최소 14권의 『교과서편집휘보』가 발간되었을 것이다.

특별히 정해진 발행간기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특징적인 시기는 존재한다. 초기인 1938년과 1939년 각 두 차례씩 발행되었다. 부정기적이지만 2회 발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1940년에는 모두 세 차례 발간되었는데, 3월·7월·10월 등 4개월에 한 차례씩 간행되었다. 1941년 발행간기는 가장 특징적이다. 이 해는 '국민학교특집'이 차례로 3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제8·9·10집으로 발간되었다. 『교과서편집휘보』 제11집은 발행연도가 확인되지 않지만, 제11집이 '국민학교특집' 네 번째로 이전에 발행된 것과 연속선상에 있고, 이전 세 차례가 3개월의 간기를 두고 발행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41년 12월에 발간했을 것이다. 제13집 별편의 발행일은 1942년 7월 10일, 따라서 제12집은 그해 3월경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발행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교과서편집휘보』 전체 발행 현황

연번	제 목	부 제	발행연월일	쪽수 ²⁷⁾
1	教科書編輯彙報 第1輯	-	1938.6.10	184

27) 쪽수는 발행정보가 적힌 면을 제외한 본문 마지막 쪽의 번호이다.

2	教科書編輯彙報 第2輯	-	1938.9.25	238
3	教科書編輯彙報 第3輯	-	1939.4.3	260
4	教科書編輯彙報 第4輯	-	1939.9.30	226
5	教科書編輯彙報 第5輯	-	1940.3.10	278
6	教科書編輯彙報 第6輯	國史特輯	1940.7.1	74
7	教科書編輯彙報 第7輯	地理特輯	1940.10.30	93
8	教科書編輯彙報 第8輯	國民學校特輯	1941.3.10	160
9	教科書編輯彙報 第9輯	國民學校特輯 2	1941.6.1	100
10	教科書編輯彙報 第10輯	國民學校特輯 3	1941.9.1	99
11	教科書編輯彙報 第11輯	國民學校特輯 4	1941.12(추정)	124
12	教科書編輯彙報 第13輯 別篇	中等學校新教科書特輯	1942.7.10	43

제1집부터 제5집까지는 별도의 부제 없이 전 교과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 제6집은 ‘국사특집’으로 꾸며졌는데, ‘국사특집’과 ‘각과일반’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7집은 지리특집, 그리고 제8집부터 제11집까지는 ‘국민학교특집’이었다. 제12집과 제13집은 현존하지 않는다. 대신 1942년 7월 발간의 『교과서편집회보』 제13집 별편이 확인되었다.

분량은 제1집이 184쪽이었다가 제2집부터 제5집까지는 200매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제6집 국사특집호부터 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후 제8집이 160매로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200매를 넘기지는 않았다.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볼 때, 편집 당국은 앞서 신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 2회 발간을 기준으로 했다. 아울러 분량은 250쪽 내외를 계획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1940년 3월 제5집 발간 때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같은 해 7월에 발간된 제6집 ‘국사특집’ 때부터이다. ‘국사특집’ 이후로는 모든 책에 부제가 붙었고 발간 간기도 짧아졌다. 전체 분량으로만 본다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좀 더 자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교과서

편집취보』 발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내용이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6집 '국사특집'의 발간사에는 이러한 내용의 신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즉, 물자절약을 위해 종이 등 자재 소비를 줄여야 하는 정세에 부응하여 약 1년 기준으로 종래의 지면 수를 유지하면서 격월로 발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과목별 특집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각 과목 속보 기사를 첨부토록 하였다.²⁸⁾ 제7집이 '지리특집'으로 발행된 것은 이러한 까닭이었다.

물론 새롭게 변경된 방침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각 과목별 특집은 '지리특집'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제8집부터는 '국민학교특집'이 네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격월 발간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제6집 이후의 『교과서편집취보』는 이전보다 분량은 적은 반면 간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신방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교과서편집취보』 전권을 통틀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제3집부터 제5집까지였다고 할 수 있다. 제1집과 제2집은 발간을 맞아 체제를 온전히 하는 때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교육령에 맞춰 간행될 교과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비해 『교과서편집취보』 제3집은 1938년 3월 개정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지 꼬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간되었다. 이때는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른 교과서가 막 발행되던 때였다. 무엇보다 당시 교과서 개정은 "참된 황국신민을 길러내어 사회의 중견층이 되는 청년 교육에 새로운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28) 「編輯彙報第6輯の刊行にあたりて」, 『教科書編輯彙報-國史特輯-』 제6집, 1940. 7월, 2쪽.

총독부에서는 작년 3월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개정하고 종래의 교육 방침에 형식과 내용을 전부 또 더 고쳐가지고 교육쇄신의 첫 출발로서 중학교와 소학교의 일음을 통일하였거니와 이번에는 다시 중등학교와 소학교과서(敎科書)를 대부분 개정하고 또는 새로 발간해야 참된 황국신민을 길러내어 사회의 증견층이 되는 청년 교육에 새로운 교육내용을 가추게 되었다. (중략)

이번에 개정 혹은 신간된 서적은 전부 설흔 가지로 이중에 종래에 있던 것을 폐지하고 전연 새로 만든 것은 열네 가지 종래에 있던 것을 약간 고쳐가지고 개정(改訂)한 것은 열여섯 가지다. (중략) 특별히 각종 교과서에는 병참기지 조선의 특수성과 또는 충후반도의 애국운동과 시국색을 만히 집어 너허 교과서를 통해서도 더욱 시국 인식에 철저케 하였다. (중략)

이번에 이가티 30종을 개정하고 신간하기까지에는 1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각 교과서별로 조직되었던 편집위원회가 열린 수효는 무려 수 백회에 이르렀든 만큼 내용과 형식을 개정하고 새로 만드는데 범연치 않은 로력이 들었다고 한다.²⁹⁾

총독부는 당시 교과서 개정을 위해 교과별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백회에 이르는 회의를 거듭했다고 한다. 이것은 위 신문기사에서 밝히고 있듯, 교과서에 “병참기지 조선의 특수성과 또는 충후반도의 애국운동과 시국색”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교과서편집휘보』 제3집에는 당시 개정된 교과서 일람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전체 현황은 표-2와 같다.³⁰⁾

29) 「時局色으로 곱게 丹青, 中小學敎科書統制. 30種目 改纂·新學期부터 使用」, 『每日新報』 1939.3.17. 3면.

30) 「昭和14年度新刊及び改訂敎科用圖書一覽表(其一)」, 『敎科書編輯彙報』 第3輯, 1939. 4월, 3~6쪽.

표-2. 1939년도 신간 및 개정교과용 도서 일람표

구분	명칭	권차	발행일 (괄호는 예정)	비고
아동용 도서	初等修身	권 1	3.10	
	初等修身	권 2	3.15	
	初等修身	권 3	3.15	
	初等修身	권 6	3.10	
	初等國語讀本	권 1	3.10	
	小學國語讀本	권 11	3.15	문부성 저작
	小學書方手本(尋常科 甲種)	제6학년 상	3.15	문부성 저작
	初等朝鮮語讀本	권 1	2.27	
	初等算術	제4학년용 상	2.27	
	尋常小學 算術書	제6학년	3.15	문부성 저작
	初等國史	권 2	2.27	
	尋常 小學圖畫	제6학년 (남아용)	3.15	문부성 저작
	尋常 小學圖畫	제6학년 (여아용)	3.15	문부성 저작
	國史地理	상권	2.28	
	簡易學校 初等朝鮮語讀本	쑤	3.10	
簡易學校 初等算術	제1학년용	3월 하순		
생도용 도서	中等教育 修身書	권 5	3.20	
	中等教育 女子修身書	권 2	3월 하순	
	中等漢文讀本	권 3	3월 하순	
	農業教科書	상권	2.27	
	農業教科書	중권	3.15	
	農業教科書	하권	(4월 하순)	
	初等修身	권 6	3월 하순	
	初等國語讀本	권 1	3.20	
	初等朝鮮語讀本	권 1	(4월 하순)	

	初等算術	제3학년 상	3월 하순	
	初等算術	제4학년 상	3월 하순	
	尋常小學 算術書	제6학년	3.15	문부성 저작
	初等唱歌	제1학년용	3.20	
	初等唱歌	제2학년용	3.20	
	みくにのうた (나라의 노래)	쉴	3.20	
	國史地理	상권	(4월 하순)	
	初等地理	권 2	(4월 하순)	
	尋常 小學圖畫	제6학년용	3.15	문부성 저작
	初等手工	제1학년용	3월 하순	
	簡易學校 初等算術	제1학년용	(4월 하순)	
	中等教育 國文讀本 卷9·10 教授備考		2.27	

『교과서편집휘보』 제3집에 수록된 신간 및 개정교과서 중 역사 관련은 아동용 『초등국사』 권2와 『국사지리』 상권, 그리고 생도용 『국사지리』 상권 등이었다.³¹⁾ 새로운 교과서 발간에 따라 제3집에는 이들의 취지와 주의 및 주안점, 시간 및 교재 배당, 그리고 내용에 대한 해설 글들이 수록되었다.

『교과서편집휘보』 제4집에는 제3집에 이어 개정 조선교육령 체제 아래 발간된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글들이 들어차 있다.³²⁾ 제4집의 내용

31) 《毎日新報》 1939년 3월 17일 자 기사에는 개정 및 신간 교과서 목록을 아동용·생도용·교사용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역사관련 교과로 아동용 『초등국사』 권2, 교사용 『국사지리』 상하권을 열거하였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교과서편집휘보』의 교과서 일람과 다소 차이가 있다.

32) 『教科書編輯彙報』 제4권에는 제3권에 이어 「昭和14年度中に發刊豫定の新刊及び改訂教科用圖書一覽表(其の2)」가 수록되었다. 아울러 제5권에는 「昭和15年度使用新刊又は改訂教科用圖書一覽表」가 삽입되어 있다.

중 특징적인 것은 황국신민화와 전시체제에 초점을 맞춘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제5학년 수신과목의 「軍事 援護와 사회의 책임」, 「防空에 대한 의무」라든가, 제6학년 수신과목의 「時局과 국민정신의 作興」, 「時局과 銃後」, 그리고 이과과목의 「체력과 전력의 증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제1집의 발간사에서 『교과서편집휘보』를 전 소학교에 반포한다고 기재되어 있듯이,³³⁾ 이 책자는 다분히 당시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점은 애초 『교과서편집휘보』에 수록된 글들의 대다수가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데서도 확인된다.³⁴⁾

『교과서편집휘보』의 내용은 처음 발행될 때부터 소학교의 각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⁵⁾ '국사특집'과 '지리특집' 편에서는 이



1939년 교과서발행 기사(『每日新報』 1939.3.17)

33) 「發刊の辭」, 『教科書編輯彙報』 第1輯, 1938. 6월, 2쪽.

34) 초등교육에 초점을 둔 총독부 발행의 교육잡지로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도 눈에 띈다. 『조선의 교육연구』는 『교과서편집휘보』보다 훨씬 오래전에 발간되기 시작하여 1940년 전후에는 함께 발행되기도 했다. 발행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더욱 대중적인 잡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조선의 교육연구』가 나름의 상업성을 띠었던 반면, 『교과서편집휘보』는 총독부가 무료로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는 점에서 내용적 차이가 있었다. 『조선의 교육연구』가 일반 독자들까지 포함하는 대중 교육잡지의 영역을 점하고 있었다면, 『교과서편집휘보』는 지극히 정책 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5) 제5집은 과목별 구성을 먼저하고 그 아래 학년별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구성상 큰 차이로 볼 수는 없다.

구성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그것은 한 과목에 치중했기 때문에 학년별·과목별 구성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역시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1941년부터는 다시금 국민학교의 각 학년별·과목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1942년 7월 발행된 『교과서편집회보』 제13집 별편은 이전의 초등교육 중심을 벗어나 중등교육만을 대상으로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13집 별편의 부제는 ‘중등학교신교과서특집’으로 기재되어 있다.³⁶⁾ 『교과서편집회보』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방침에 따라 그 내용이 유동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1942년에 새롭게 발행된 중등학교 교과서는 『중등공민-남자용-』 상³⁷⁾, 『중등공민-여자용-』 상³⁸⁾, 『중등국어-남자용-』 권3·권³⁹⁾, 『중등국어-여자용-』 권3·권⁴⁰⁾, 『중등국문법-구어편 남자용-』⁴¹⁾, 『중등국사-저학년-』⁴²⁾, 『중등가사-권2-』⁴³⁾ 등 이었다.⁴⁴⁾

36) 「中等學校新教科書特輯號について」, 『教科書編輯彙報 - 中等學校新教科書特輯 -』 第13輯 別篇, 1942. 7월.

37) 중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용.

38) 고등여학교, 여자실업학교, 여자사범학교용.

39) 중학교, 사범학교용.

40) 고등여학교, 여자사범학교용.

41) 중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용.

42) 중학교, 고등여학교, 남녀실업학교, 남녀사범학교용.

43) 고등여학교, 여자실업학교, 여자사범학교용.

44) 「昭和17年度新刊教科用圖書」, 『教科書編輯彙報 - 中等學校新教科書特輯 -』 第13輯 別篇

IV. 『교과서편집휘보』의 '국사' 관련 내용과 특징

『교과서편집휘보』는 조선총독부가 매년 교과서를 직접 발행하기 힘들거나 또는 시국에 따른 교육방침 하달을 위해 발간한 '보조교재'였다. 물론 그 배경에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교육과 전시 동원이라는 궁극의 목적이 도사리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4장에서는 『교과서편집휘보』에 수록되어 있는 '국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그 지향성과 목적성을 더욱 분명히 밝혀 보도록 하겠다.

특히, 제3집과 제6집에 수록된 글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제3집에는 모든 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국사 관련 글이 수록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제3집에는 개정 조선교육령 발표 1년을 맞아 새롭게 발간된 교과서들을 개괄하고 그 방침을 설명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국사과목에 대해서도 여러 주목할 만한 내용이 눈에 띈다. 제6집은 '국사특집'으로 국사과목을 위해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1. 『교과서편집휘보』 중 '국사' 관련 내용 개요

당시 '국사' 교육은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 교육을 위해 가장 주요한 교과목으로 인식되었다. 즉, 출생의 차이 때문에 일본인보다 국체를 자기 것으로 인식하기 힘든 조선인에게 "우리나라 역사의 대요를 이해"시키기 위해 '국사' 교육이 강조되었던 것이다.⁴⁵⁾ 따라서 『교과서편집휘보』에는 매 호마다 '국사' 관련 글들이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었다. 관련 교과서가 발간될 때는 그 취지와 내용 해설 등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

45) 김한중, 「내선일체론의 역사교육 적용」, 329~330쪽.

에도 식민 당국은 '예하' 교육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국사' 교육 방침을 해설하고 그 교수방법도 하달하고 있었다. 『교과서편집휘보』에 수록되어 있는 '국사' 관련 글의 전체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교과서편집휘보』 중 '국사' 관련 글 내역

『교과서편집휘보』	'국사' 관련 수록 글 내역
教科書編輯彙報 第1輯 (1938.6.10)	제4학년 국사지리 - 「신간 『국사지리』편찬의 취지와 취급상 주의」 - 「국사지리 상권 삽화 해설」 제6학년 국사 - 「초등국사 권2 삽화 해설」 - 「초상화의 취급에 대하여」
教科書編輯彙報 第2輯 (1938.9.25)	제4학년 국사지리: 국사지리 상권 삽화 해설(2) 제6학년 국사: 초등국사 권2 삽화해설(2)
教科書編輯彙報 第3輯 (1939.4.3)	조선의 국사교육과 교과용 도서의 변천 제4학년 국사지리 - 『국사지리』 상권의 수정에 대하여 - 국사 지리 교재 배당표 제5학년 국사 - 과도기의 국사와 수업을 위해 - 국사 시간 배당표(제5학년) - 국사 교재 배당표(제5학년) 제6학년 국사 - 『초등국사』와 『소학국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 국사 교재 배당표(제6학년) 잡록 - 국사 掛圖의 출판 ⁴⁶⁾

46) 1939년 제작된 국사 과도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1년 전부터 “국가의 정화(精華)와 충신열사(忠臣烈士)들의 사적(史蹟)을 국사(國史) 교재로 쓰”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다(〈日本精神의 眞髓를 小學國史 掛圖로, 來年 4月 新學期부터 使用케〉, 《每日新報》 1938.8.11. 6면).

教科書編輯彙報 第4輯 (1939.9.30)	興亞教育和 국사
教科書編輯彙報 第5輯 (1940.3.10)	국사 - 신간 『초등국사』의 편찬요지와 취급 제5학년 - 신교과서에 의한 지도를 위하여
教科書編輯彙報 第6輯 (1940.7.1)	국사특집 - 신국사서 취급자를 위하여 - 국사의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사교과서 內鮮兒童 共用의 의의 - 신 『초등국사』 隨感 - 신간 『초등국사』의 특색 * 이밖에 '국사의 감상 발표', '지도안 한 가지', '지도 안을 통하여' 등의 글들이 작은 주제로 수록되어 있음.
教科書編輯彙報 第7輯 (1940.10.30)	각과일반 역사 - 역대 천황 追號 讀法の 결정
教科書編輯彙報 第8輯 (1941.3.10)	신간소개 소학교용 - 신 『초등국사』 제6학년 취급자를 위하여
教科書編輯彙報 第9輯 (1941.6.1)	국사 및 지리 교과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教科書編輯彙報 第10輯 (1941.9.1)	-
教科書編輯彙報 第11輯 (1941.12 추정)	특집-교과서 활용의 구체적 지침 - 과도기의 국민과 국사 수업을 위하여
教科書編輯彙報 第13輯 別篇 (1942.7.10)	『중등국사』 저학년 신간 중등학교 역사과 담당교원 간담회 기록

『교과서편집취보』 제1집과 제2집에 수록된 국사 관련 글들은 교과목의 취지와 시국 관련 내용보다는 교과서에 삽입된 삽화나 지도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사지리』에 담긴 '국사의 체계'나 '국체명징'의 취지도

설명되어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집부터 제5집까지는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른 『초등국사』 개정 발행 이후 이 교과서의 취지를 밝히고 여러 교재를 설명하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3집은 제6집 ‘국사특집’을 제외하면 ‘국사’ 교육과 관련한 가장 많은 글을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6집은 ‘국사교육’ 특집으로 『초등학교』 5학년용 발간에 따라 그 이용 방안을 비롯하여, ‘국사’ 교육의 체계와 교육방침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또한 현장 학교의 교사들이 『초등국사』를 직접 사용하고 느낌 감상과 교과서의 특색 등도 게재되었다. 이외에도 현장 교사들의 『초등국사』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지도안 등도 수록되어 현장성을 더욱 강화한 모습을 띤다.

제7집은 ‘지리교육’ 특집이었던 탓에 역사 관련 내용은 소략했다. 제8집은 『초등국사』 6학년용의 개정 발간에 따라 그 편찬 방침과 시국에 따른 교육 방안 등을 기록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1941년 국민학교령에 따라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정하는 등 변화 속에서 ‘국사’ 교육의 방침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9집과 11집 역시 같은 맥락의 글이 수록되었다.

『교과서편집취보』 제13집 별편은 이전과 달리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국사』를 이수하고 진급하는 아동들을 새로운 교과체제에서 교육하기 위해 『중등국사』를 제작했는데, 그 편찬 목적과 방침의 개요, 그리고 대략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⁴⁷⁾ 원래 총독부에서는 1942년 『중등국사』 저학년용 발간에 이어 이듬해인 1943년에는 『중등국사』 고학년용을 발행하고자 했었다.

제13집 별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중등학교 역사과 담당교원 간담회 기록」이다.⁴⁸⁾ 이 간담회는 1941년 11월 6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47) 『『中等國史』低學年の新刊』, 『教科書編輯彙報』第13輯 別篇, 5~12쪽.

11시 40분까지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주최했으며 참석자는 역사학자 쓰지 켄노스케(辻善之助)를 비롯하여 마사키(眞崎) 학무국장, 시마다(島田) 편집과장, 나카무라(中村) 편수관, 그리고 경성사범과 경성여자사범 역사과 담당교원 등이었다. 이밖에 경기도 공사립 중등학교 역사과 담당교원 약 200명도 함께 했다고 한다. 협의사항은 첫째, 중등학교 역사교과용 도서에 관한 의견 희망, 둘째 초등학교 제도 실시에 따른 연락상 유의해야할 점, 셋째 시국에 비춰 외국사(동양사, 서양사) 교수상 유의해야할 점, 넷째 국사교육의 철저에 관하여 특히 고려할 만한 경영 시설 및 그 효과, 다섯째 역사에 관한 생도 참고용 도서 및 과외 입을 것에 대한 소견 등이었다.

2. 『교과서편집회보』의 '국사' 관련 내용의 특징

『교과서편집회보』 중 국사과목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제3집과 제6집이다. 아래에서는 제3집과 제6집의 '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3집에는 당시 시국을 반영한 두 가지 측면의 글들이 게재되어 있다. 첫 번째는 「조선의 국사교육과 교과용 도서의 변천」이라는 글로, 바야흐로 전시체제 황민화교육의 본격적이고 가시적인 시행을 위해 식민지 조선의 교육이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를 역사적으로 '통찰'한 글이었다. 두 번째는 신규 교과서 사용에 따라 이전 교과서와 새로운 교과서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을 서술한 글이었다.

「조선의 국사교육과 교과용 도서의 변천」에서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개정 교육령과 지원병제도가 함께 시행됨에

48) 「中等學校歷史科擔當教員懇談會記錄」, 『教科書編輯彙報』第13輯 別篇, 30~40쪽.

따라 내선일체관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것이 ‘초미의 급무’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잘 완수하기 위한 주요 교과로 국어와 수신, 그리고 역사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역사교육은 “국민정신의 동향에 관한 것”인 까닭에 애초부터 총독부가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여 “시국하의 역사교육으로부터 나아가 신일본의 역사교육으로 혁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⁹⁾

그렇다면, ‘시국하 조선의 역사교육’은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 전반의 문제로써 단행되도록 역사교육을 쇄신하는 것, 둘째는 조선의 특수사정에서 비롯된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동반하여 반드시 이뤄야할 혁신이다.⁵⁰⁾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른 일본인과 조선인 교육 계통의 통일은 일대 혁신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두 번째 신규 교과서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로 학습하고 있던 학생들이 새로운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데 따른 단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었다. 특히 1939년 당시 소학교 5학년생의 경우 『소학국사』 상권을 배우다가 1940년 6학년에 진학하면서 『초등국사』 권2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연결에서 큰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⁵¹⁾ 따라서 이를 가르칠 ‘교수자’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제3집의 내용 중 주목되는 것으로 ‘질의응답’ 코너가 있다. ‘질의응답’은 제2집에서 현장 학교 ‘교수자’를 대상으로 편집 당국이 질의를 받겠다고 공표한 데서 비롯되었다.⁵²⁾ 실제 제3집에는 ‘질의응답’이라는 제목의 섹션

49)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第3輯, 46~48쪽.

50)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第3輯, 59~60쪽.

51) 「過渡期に於ける國史科授業のために」, 『教科書編輯彙報』第3輯, 153~154쪽.

52) 『교과서편집회보』 제2집의 발간사 격인 ‘희망’의 두 번째 항목에는 ‘질의란’을 특

이 상당부분 할애되어 있었다.⁵³⁾

제3집 '질의응답'의 '國史' 부분에는 단 한 개의 질문만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文祿役(임진왜란-필자)에서 활동했던 水將 李舜臣의 유적을 가진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內鮮一體의 견지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였다. 편집 당국의 입장에서 나름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뒤이어 나오는 답변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다.

쭉 이것은 충남 아산군의 학교에서 질문한 것이다. 질문의 의미가 다소 애매하여 요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순신의 사적을 가르칠 때 취급 방법이라는 의미(이것이 直解인지 잘 모르겠지만)라고 하면, 초등학교 및 『초등국사』를 교과서로 사용하는 교육에서는 모두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등국사』에는 文祿慶長의 役(임진왜란-필자)에서 이순신의 활동이 교재로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교재로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부가하는 것은 극히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국사교육에서는 임의로 교재를 선택하거나 버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초등교육의 범주를 지켜야만 한다.

두 번째는 이순신의 유적이 있는 곳에서 文祿役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을 질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질문자의 기대는 아마도 이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내선일체의 견지에서 본다면, 쓸데없는 향토 교재와 그릇된 부연을 하지 않고, 바르게 교과서에 채택된 교재를 교과서가 지시하는 방향 쪽으로 설명 교수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종래의 편견과 잘못된 견해에 치우치거나

설하는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라 책의 말미에는 질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대목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1. 질의는 반드시 학교명 혹은 학교장 명의로 할 것, 2. 회답은 일일이 발송하지 않고, 묶어서 다음 간행하는 회보에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었다(『質疑欄』, 『教科書編輯彙報』 第2輯, 236쪽).

53) 『質疑應答』, 『教科書編輯彙報』 第3輯, 1939. 4월, 253~260쪽.

또는 교수자 자신이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취급에 성공할 것이다.⁵⁴⁾

편집 당국은 질문의 의도를 두 가지로 해석했다. 첫 번째는 표면적 의미로 단순히 이순신의 유적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가로 해석했을 때이다. 여기에서 당국은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나무라듯 말한다. 두 번째는 실제적 의미로 이순신의 유적을 가르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이다. 당국은 “쓸데없는 향토 교재와 그릇된 부연을 하지” 말고 그저 교과서에 채택된 것만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도하라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는 이렇듯 필요도 없고, 정확한 검토도 없이, 확실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성한 국사교육의 효과를 동요”토록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순신의 유적’이 갖는 의미와 그 교육 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현행 교과서의 내용 외의 것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질의응답’ 코너는 제3집을 끝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제2집에서 이를 기획할 때에는 한 차례만 실시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 ‘질의응답’ 코너를 한 차례만 운영했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국사’ 교과서의 질문 사항을 읽다보면 편집 당국의 곤란함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미 1931년 교수요목의 변화에 따라 조선사 서술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은 크게 감소되었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기사와 부정적 평가 역시 삭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⁵⁵⁾ 이러한 시국에 이순신을 언급하며 총독부로 들어오는 질의가 달가웠을 까닭이 없다.

54) 「質疑應答」, 『教科書編輯彙報』第3輯, 1939. 4월, 258~259쪽.

55) 허미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고등보통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와 조선사 교육의 특성」, 435~438쪽.

다음으로 제6집 '국사특집'호를 살펴보자. 『교과서편집회보』 제6집은 '국사특집'이라는 부제답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국사특집', 둘째는 '각과일반'이다. 국사특집 부분에는 모두 5개의 주요 글을 중심으로 학습지도안이나 교과서 관련 소감이 수록되었다. 요컨대 당시 새롭게 발간된 『초등국사』(제5학년)의 체계와 의의, 그리고 특색 등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편집과장과 편수관,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유 등이 기술한 5개의 국사 관련 글이 게재되어 있다. '각과일반'에는 『초등수신』 교과서 발간과 관련된 편수관 가마쓰카 다스쿠(鎌塚扶)의 글을 시작으로 당시 창씨개명에 따른 교과서 내 가상 등장인물의 이름 변경 건이 여럿 다뤄졌다.⁵⁶⁾

'국사특집' 부분에 수록된 주요한 5개의 글과 필자는 아래와 같다.

편집과장 시마다 우시와카(島田牛稚)의 「신국사서 취급자를 위하여」, 나카무라(中村榮孝) 편수관의 「국사의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성여자사범 교유 효도 다다시(兵頭正)의 「국사교과서 내선 아동 공용의 의의」, 미야자키(宮崎五十騎)의 「신 『초등국사』 隨感」, 마지막으로 가마쓰카의 「신간 『초등국사』의 특색」 등이다.

이 중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의 과장 시마다와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유 효도 다다시의 글을 주목해 보자. 시마다는 당시 조선총독부 내에서 교과용도서 편찬과 민력(民曆)의 출판 및 반포를 총괄했던 편집과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이다.⁵⁷⁾ 아울러 효도 다다시는 당시 발행된 교과서를 직접 가르치게 될 교사의 양성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56) “앞으로 새롭게 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물론이고 이미 간행된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등장하는 허구로 만든 인물의 이름은 그것을 모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도에 맞춰 고치게끔 한 것이다.”(『教科書の假作人物の氏名に就いて - 創氏改名に因んだ修正 -, 『教科書編輯彙報』 第6輯, 67쪽.)

57) 학무국 편집과의 업무에 관해서는 장신,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37쪽 참조.

우선 시마다의 글은 『초등국사』 5학년용의 발행을 직접 총괄했던 입장에서 교과서의 취지와 이용방안을 설명한 지침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는 『초등국사』가 “국체의 본원을 탐구하고, 흥아정신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황국신민육성의 근본요사는 우리 국사의 진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초등국사 편찬 기본방침 8개조는 교수자가 충분히 味讀하고, 그 정신에 따라 교과서를 취급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신, 재삼 교과서를 통독하고, 편찬자가 고심했던 바를 알아서, 더불어 국사의 일관정신을 체득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⁵⁸⁾

시마다가 말하는 기본방침 8개조는 교과서 발행 다음 달인 1940년 5월에 발간된 『초등국사편찬취의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체 관념의 明徵
2. 국민정신 一貫性의 강조
3. 嚴正穩健한 비판력의 啓培
4. 신시대로의 卽應
5. 대외관계 교재의 중시
6. 교재 배열의 쇄신
7. 삽화 및 도표류의 쇄신
8. 문장의 평이 간이⁵⁹⁾

58) 「新國史書取扱者のために」, 『教科書編輯彙報』 第6輯, 4쪽.

59) 『初等國史編纂趣意書』 第5學年, 朝鮮總督府, 1940.5월, 4~19쪽.

『초등국사』 5학년용은 이러한 여덟 가지에 기준하여 제작되었다고 한다. 결국 '천황제 국가' 일본의 본질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고, 전시체제에서 국제사회에 맞서 국론의 통일을 강조한 교과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효도 다다시는 글의 서두에서 『초등국사』 5학년용의 발간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기원 2,600년의 신년도를 기하여, 조선 내 거주하는 내선 아동에게 새롭게 편찬하는 국사교과서를 공통으로 사용케 하는 획기적 대사업을 실천에 옮겼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조선 지방의 국사’라는 소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국민교육에서 국정의 국사교과서가 전국 일률로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하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그럼에도 조선 지방에서 같은 지방 내에서 두 종류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종래 총독부 편찬의 국사교과서는 원래 보통학교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왕왕 조선인 아동으로서는 특별한 의도 아래 曲筆作爲한 국사를 학습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온다는 염려도 있었고, 또한 내지인 아동으로서는 국사의 인식을 불철저하여 특히 내선일체라는 사실의 유래에 대하여 전혀 역사적 이해를 결여하는 것과 같은 일대 폐해를 동반했던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양자로 하여금 동일한 국사교과서를 사용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여, 본년도 초등국사 제5학년용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⁶⁰⁾

기존에 조선인과 일본인 아동이 다른 교과서를 사용했던 것은 꼭필 작위하고 역사적 이해를 결여한 것이었는데, 이제 『초등국사』 5학년용이라는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초등국사』 5학년용은 “내선인 아동으로 하여금

60) 「國史教科書內鮮兒童共用の意義」, 『教科書編輯彙報』 第6輯, 20쪽.

공통적으로 우리 국체의 존엄과 그에 바탕한 팔굉일우의 국가이념을 한 점 의혹의 여지없이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교과서로, 이를 통해 "황국의 역사적 사명에 기초하여 역사적 존재로서 자기를 자각하고, 국민으로서 정 신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⁶¹⁾ 효도의 글은 편집과장 시 마다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교사들에게 주입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황민화교육의 취지를 설파한 것이었다.

V. 결론

『교과서편집휘보』는 교과서 편찬의 근본정신, 즉 황민화 교육의 요체를 서술하고, 시국의 변화를 앞서 반영할 수 없는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하며, 교과서에 미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이자 도구서였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미진한 역사교과서 내용을 그때그때 보완하고 그 자체로 보조교재로 사용 가능하며, 새로운 교과서 발간을 추동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다.

『교과서편집휘보』는 1938년 6월 제1집이 발간되었다. 처음에는 매년 2회 발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40년에는 3회, 1941년에는 4회 발행되기도 했다. 현재는 1942년 7월 발행된 『교과서편집휘보』 제13집 별편까지 확인되는데, 이후에도 발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40년 3월 제5집까지는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했고, 이후에는 국사특집(제6집), 지리특집(제7집)과 같이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1941년에 발간된 네 차례는 국민학교 특집으로 엮었다. 마지막 제13집 별편은 중등

61) 「國史教科書內鮮兒童共用の意義」, 『教科書編輯彙報』第6輯, 1940, 21쪽.

학교신교과서특집이었다.

이렇듯 『교과서편집휘보』는 전시체제가 심화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 교육 방침을 임기 즉응하는 방식으로 발간되고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펴낸 초등 국정교과서에 대응하여 그 편찬 방침과 교수 방안 등을 그때그때 편달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이러한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은 제3집부터 제5집까지였다. 무엇보다 제3집부터 제5집까지는 1938년 3월 개정교육령 발표에 따른 신규 초등교과서 발행과 더불어 각 교과별 특징과 교수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제6집은 국사특집으로 당시 역사과를 중심으로 황민화교육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교과서편집휘보』에는 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국사'교육과 관련된 글이 수록되었다. 특히 제3집과 제6집의 내용이 가장 주목을 끈다. 제3집에는 「조선의 국사교육과 교과용 도서의 변천」이라는 총론적 성격의 글을 비롯하여 제4학년 『국사지리』와 제5·6학년 『국사』 교과서별 특징, 그리고 교과 시간과 교재 배당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른바 시국하 역사교육의 혁신에 관하여, 조선의 특수사정에서 비롯된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동반하여 역사교육을 쇄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집에는 '질의응답'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 현장 학교 '교수자'의 질의를 총독부 학무국 편집 당국에서 답변하는 형태의 구성이었다. 제6집은 '국사특집'호였던 만큼 국사과를 중심으로 체제와 내용이 구성되었다. 특별히 1940년 발행된 『초등국사』 5학년용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무국 편집과장과 편수관, 그리고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유 등이 발간 취지와 이용방안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

이글에서는 『교과서편집휘보』의 발간 배경과 체제 및 구성, 그리고 그 내용적 특징을 서술하였다. 『교과서편집휘보』에 담긴 내용이 적지 않은 탓에 아직 그 세부적인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지 못했지만, 부

족하나마 형태적·내용적 특성의 일단을 규명해 보았다. 『교과서편집취보』가 발간되었던 1938년부터 1942년까지는 중일전쟁 개전 직후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였고, 이에 따라 전시체제가 본격화됨으로써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교육이 노골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제기되던 때였다. 당시 개정 조선교육령 발표와 그에 맞춘 교과서 발행, 그리고 『교과서편집취보』 발간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황민화 교육 시행의 정립(鼎立)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과서편집취보』가 1942년 7년 제13집 별편 이후에도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면, 1941년 말 전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상적인' 황민화 교육정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후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편집취보』만을 대상으로 했고, 또한 그 구조적인 부분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선총독부 발행 교과서와 관계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겠다.

(2019.11.09. 투고 / 2019.12.10. 심사완료 / 2019.12.10. 게재확정)

[Abstract]

Itemized Collection of Edited Textbook and 'National History'
Educa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fte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Cho, Gu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utilized as guide and tool for Japanese colonial policy through publishing *Itemized collection of edited textbook*(教科書編輯彙報) from 1938. At first the governmental general planned to issue twice per year but sometimes issued 3 times in 1940 and 4thtimes in 1941. There was the regulation of issuance but issuance of the collection is known to happen fluidly according to the time without sticking to the regulation.

The collections of edited textbooks can be found with all 12 books from Vol.1 to Vol.11 and additional Vol.13. Vol. 12 and 13 are attached to 'Geography Special' and Vol.8 to Vol.11 are 'Elementary Special Volume'. At that time they were made up newly based on system and contents tailored to the issuance of textbook of the related subject and change in educational policy.

The collection attracting attention with regards to 'History' education among the itemized collections of edited textbook are Vol. 3 and Vol. 6. Vol.3 issued in April 1939 con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y geography* and *history* textbook and time and textbook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point of Joseon Education Ordinance announced 1 year ago. Vol.6 is composed by Editorial Department of Education and Management Bureau in honor of issuing after revising *Elementary National history* for 5th grade.

Announcing revised Joseon Education Ordinance in late 1930s, publishing textbook accordingly and issuance of the *itemized collection of edited textbook* is crucial in terms of showing the procedure of educating Japanese Colonial Policy of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detail.

□ Keyword

The itemized collections of edited textbook, Joseon Educational Ordinance, education of Japanese colonial policy, Education Policy, Education and Management Bureau, *Elementary National history*

[참고문헌]

《每日申(新報)》《동아일보》

『教科書編輯彙報』 제1집부터 제11집(국립중앙도서관)

『教科書編輯彙報』 제13집 별편(국회도서관)

『初等國史編纂趣意書』

아마노 이쿠오 지음, 박광현·정종현 옮김, 『제국대학』, 산처림, 2017.

허재영,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2009.

권오현,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역사교육논집』 30, 2003.

김정인,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역사교육』 122, 2012.

김한중,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교과서발행」, 『역사교육연구』 9, 2009.

_____, 「내선일체론의 역사교육 적용」, 『역사교육연구』 20, 2014

민병찬·박화리, 「일제강점기 교과서 개정에 대한 일고찰 - 『교과서편집회보』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보』 30, 2006.

손석영, 「일제의 대동아사 구상과 역사교육-〈동아 및 세계〉 과목과 교과서 『중등역사1』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9, 2017.

장 신,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 2004.

허미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고등보통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와 조선사 교육의 특성」, 『한국사연구』 186, 2019.

權五鉉, 「朝鮮總督府下における歴史教育内容史研究 - 國民意識形成の論理を中心に -」, 廣島大學教 博士學位論文, 1999.